

대학생의 창업결정과정: 근거이론적 접근*

조지혜**

초 록

본 연구는 근거이론 접근을 사용하여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한 대학생의 창업결정과정 경험을 밝힘으로써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실체이론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 case selection)을 통해 선정된 사례들로부터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창업결정 대학생 최종 16명을 선정했다. 이들과 2~3회 개인별 면담을 하고, 그 자료를 근거이론의 방법(Strauss & Corbin, 1998)에 따라 분석했다. 자료 분석 결과, 개방 코딩(open coding)을 통해 총 420개의 개념(concepts), 40개의 하위범주(subcategories), 16개의 범주(categories)가 생성되었다. 패러다임 분석(paradigm analysis) 결과, 중심현상(central phenomenon)은 '좌절 경험을 통한 대안 찾기, 창업이라는 진로 발견'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실제 행동전략, 즉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ies)으로 '창업 의지에 날개 달기', '창업가 접촉 기회 및 긍정적 피드백', '창업가로서의 능력 검증', '사회적 자원의 적극적 동원'을 사용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참여자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창업을 통해 나의 길 가기', '현실적 창업토대구축'이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경험을 근거이론의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한 대학생에 대하여 실체적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진로교육 및 상담 차원의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전략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대학생, 창업결정과정, 근거이론

* 이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일부 발췌,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Cogito 대학교육혁신원 조교수, wisdomcho@kku.ac.kr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정부와 대학이 대학생을 위한 창업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창업환경을 조성해나감에 따라 대학에서는 창업을 진로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하는 대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대학생들은 취업, 대학원 진학 양상과는 다른 진로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진로교육 및 상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도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한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여 이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이를 뒷받침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한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진로교육 및 상담 분야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진로결정의 개인차와 관련 변인에 대한 통계연구와 함께,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과정을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공수연, 양성은, 2012; 김효정, 김봉환, 2011; 남경민, 유성경, 하정, 강혜원, 곽형선, 2010; 손진희, 2010a; 손진희, 2010b; 임은미, 2011; 전방연, 2016; 정규진, 2016; 최진영, 이광호, 2012; 하정, 2008; 황매향, 조효진, 조윤진, 방지원, 2013). 예를 들어, 황매향 외(2013)는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을 부모, 타인과의 상호작용, 다양한 경험, 자기 탐색 및 이해로 설명했다. 또한 임은미(2011)는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에 부모와의 진로선택 갈등 여부, 소속 전공 및 학과 자부심, 지속적인 환경적 지지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서 기술한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정에는 부모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서구 사회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개발된 진로이론(Zhou, Leung & Li, 2012)이 한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가족과 집단의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collectivism) 문화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업 세계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 흥미, 상호작용이 사람과의 관계(relationships)에 영향을 받고 구성될 수 있다(Blustein, 2011; Blustein, Schultheiss & Flum, 2004; Gergen, 2009). 실제로 최근의 진로결정 연구들은

국가 간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여 진로결정과정이나 진로결정 시 겪는 어려움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Gati, Landman, Davidovitch, Asulin-Peretz & Gadassiet, 2010; Lihui, Liu, Hongya, Tianlong, Yueran & Zhenhu, 2018; Willner, Gati & Guan, 2015). 따라서 실제 한국 대학생들이 처한 사회 및 문화, 경제적 현실이라는 배경에서 그에 따른 민감한 이해가 요구되며, 그들의 진로결정에 존재하는 문화 가치와 가족의 영향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최근에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는 연령적 대상이 전생애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는 연구대상의 특성과 당면과제에 따라 진로결정의 양태가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연구설계를 해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조지혜(2019b)는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한 대학생의 경우, 연구대상의 특성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과 다른 기업가적 성향, 예를 들어 주체성, 자기효능감, 혁신성, 성취 욕구가 있음을 질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경영학, 벤처창업 분야에서 창업가의 특성, 즉, '성취욕구, 내적 통제 소재, 자기효능감, 위험 감수성, 혁신성, 진취성 등'을 지닌 사람이 창업 의지, 창업 성공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강재학, 양동우, 2016; 배병윤, 이주현, 2018; Boyd & Vozikis, 1994; Chena & Guignard, 1998; Krueger & Brazeal, 1994; Yan, 2010). 따라서 창업 결정 대학생의 경우, 연구대상의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진로결정 양상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결정 선택 양상이 크게 취업, 대학원 진학, 창업으로 나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교육 및 상담 분야에서는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가 이처럼 세분화되어 진행되지 않았다. 최근 조지혜(2019b)는 예비창업가 대학생의 창업결정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그들의 주관적 경험이 창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친 요인과 창업결정에 따른 고민 내용, 창업결정에 따른 부가적인 과제 등 문제를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취업, 대학원 진학을 진로결정한 대학생들과 다른 양태의 지점들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창업을 진로로 결정한 대학생들을 질적인 연구 방법으로 접근한 초기 연구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창업결정과정의 이론을 개발, 이를 정교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대학생들이 어떤 경험과 과정을 통해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고자 실시하였다. 또한 이들의 경

험으로부터 대학생들의 창업결정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는 실제 이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이라는 발달과업 혹은 문제상황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밝히기 위해 근거이론 방법을 선택했다(Glaser & Strauss, 1968). 근거이론은 특히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개념들이 확인되지 않고, 현상에 관계된 변인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에 적합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알려져 있다(Strauss & Corbin, 1998). 즉, 대학생¹⁾들이 청소년기를 거쳐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에 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겪는 여러 도전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 재학 중, 졸업 후, 사회 경험 후 창업할 의사와 계획을 가지고 이를 준비하고 있는 1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대학생 진로결정 관련 선행연구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창업결정 대학생만의 독특한 경험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진로교육 및 상담 차원의 차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근거이론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결정과정에 대한 실제이론을 개발하고자 질적연구방법 중 근거이론 분석방법을 선택했다.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자신의 진로로 창업을 결정한 대학생의 주관적 경험을 탐색한다는 면에서 기타 질적 연구들과 유사하지만, 그들이 직면하는 현상에 대한 기술 수준을 넘어서 과정에 대한 추상적 및 분석적 구조인 이론을 도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까지 대학생 대상의 창업결정과정에 대한 적합한 개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개념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상 9세부터 24세까지이지만,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특성상 이들의 초기 성인기 즉, 청년 시기까지 함께 다루었음.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최초표집을 위해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on case selection) 방법을 사용했다. 서울권 4년제 사립대학교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선도대학, 교육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K+)에서 창업지원단 담당자의 추천을 받아 창업을 진로로 결정한 3인의 대학생을 최초사례로 표집했다. 이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대상자의 기준을 설명한 뒤, 다른 참여자들을 추천받았다. 이렇게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갔다(Gall, Gall & Borg, 2003). 이론적 포화를 위해 성별, 대학교, 학과 및 계열, 창업 분야 등 특성이 다른 3인을 추가로 선정하면서 자료수집을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16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학 중 창업을 했거나, 졸업 전·후, 사회 경험 후 창업 의지가 있는 서울 4년제 사립대학생 16명을 2018년 7월에서 2019년 1월까지 2~3회 일대일 면담을 실시했다. 성별은 남성 12명, 여성 4명이었다. 계열은 특히 상경, 공학 학생들이 주를 이루었다. 전공 관련 창업계획 참여자는 9명, 그렇지 않은 경우는 7명이었다. 창업 분야는 패션 분야부터 교육, 기술창업까지 다양했다. 참여자들의 개인 특성은 아래의 표 1에 제시했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번호	성별	학년	나이	계열	학과	진공 창업	창업분야	창업시기
1	여	3	24	생활과학	식품영양	×	패션	재학
2	남	4	28	공학	건축공학	×	지식서비스	재학
3	남	3	25	공학	전자전기	○	전자전기	취업 5년
4	남	3	25	공학	발전기계	○	발전기계	취업 5~10년
5	여	3	25	사회과학	정치외교/창업학	×	지식서비스	재학
6	남	2	22	상경	경영학	○	유통	재학
7	남	4	27	공학	화학공학	×	미디어/진로교육	재학
8	남	4	29	상경	경영	○	소프트웨어/무역업	재학
9	남	4	26	공학	토목/컴퓨터공학	○	블록체인/스마트시티	재학
10	여	2	20	사회과학	소비자경제	○	경영마케팅	취업 5년
11	남	2*	24	공학	글로벌융합공학	○	창업교육/머신러닝	재학
12	남	3	25	상경	글로벌경영	○	경영컨설팅	재학
13	여	3	23	상경	경영학	×	청소년진로교육	취업 5년
14	남	4	27	법학	정책학	×	예술문화	재학
15	남	3	26	상경	경영학	○	IT/유통	재학
16	남	3	26	사범	프랑스교육	×	유통, 핀테크	재학

* 대학원 2학기

3. 자료수집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다음 과정을 거쳤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과정, 창업의지 및 성공, 근거이론 등 선행연구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예비면담 질문지를 작성했다. 둘째, 작성된 질문지를 가지고 2018년 7월, 예비면담을 3명에게 실시했다. 셋째, 예비면담 후 문항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확인 및 검증을 받고 최종질문지를 확정했다. 주요 면담 질문은 “어떻게 창업을 진로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창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경험이나 사건, 사람 등 무엇이든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등이었다. 넷째, 1차 면담은 2018년 7월~8월, 2차는 2018년 12월~2019년 1월에 16명 대상으로 진행했다. 연구자는 1회 평균 약 1시간 10분, 1명당 2~3회에 걸쳐 약 2시간 20분에서 3시간 정도 심층 면담을 했다. 면접 내용을 정리한 녹취록의 분량은 총 A4 용지 569장이었다. 연구자는 면접을 직접 진행했고, 면접 과정에서 참여자의 특징과 면접 상황, 주요 내용을 메모했다. 면담 장소는 편안하고 조용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자 하였고, 주로 참여자가 소속된 각 대학교 주변 스터디카페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4. 연구자 준비도 및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1) 연구자 준비도

질적연구, 근거이론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자의 준비 및 수련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 I, II 과목을 수강했으며, 수년간 질적 연구 관련 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한국질적탐구학회 2018년 11월 추계 학술대회 ‘질적자료분석 워크숍’, 질적연구소 2019년 3월 ‘근거이론 질적 연구 마스터과정 워크숍’등 실제적 학습에 참여했다. 둘째, 연구자는 박사 논문에 앞서 예비연구 ‘예비창업가 대학생의 창업결정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대학생의 창업 준비과정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2편을 등재지에 단독으로 게재했다. 이는 논문주제 구상, 연구참여자 특성 파악, 면접 질문지 작성, 자료수

집 및 분석 방법 등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성 및 경력사항으로, 연구자는 교육학 상담·교육심리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15년간 진로연구 및 사업에 참여했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커리어넷 진로상담,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체험센터, 농산어촌 ICT지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더불어, 연구자는 연구대상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2018년 8월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 주최하는 ‘대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를 수료하는 등 창업교육에 참여했고, 2019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3,000만원을 지원받아 시장 분석, 사업 수익모델 개발, 법인설립 등 일련의 창업 과정을 경험했다. 이처럼 연구자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력 및 경험은 참여자와의 면담 시 라포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익숙함이나 개인적 경험이 객관성을 해치고 선입견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다음을 고려했다. 첫째, 참여자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연구주제와 과정을 설명했고, 이메일로 연구목적과 내용 및 권리, 면담 질문을 발송했다. 둘째, 면담 전 ‘연구참여자 설명서 및 동의서’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는 연구주제, 연구목적과 내용, 참여대상, 연구방법, 연구 중단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등이 포함되었다. 셋째,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번호로 구분했다. 넷째, 면담 녹취록은 전사 작업을 거쳐 원자료로 사용했다. 다섯째, 참여자들에게 논문 최종단계에서 개인별로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내용 삭제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의 분석단계에 따라 진행했다. 코딩은 근거이론에서 실제적 이론을 발견하기 위해 수집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이며(박승민, 김광수, 방기연, 오영희, 임은미, 2012), 개념을 명명하여

범주를 생성시키고 범주들 간의 연관성을 연결하여 포괄적인 이론적 명제를 제시한다. 개방 코딩에서는 줄 단위 분석을 통해 개념을 발견하여 명명했으며, 서로 유사하거나 의미상 연관되어있는 개념들을 하위범주로 추상화하여 속성과 차원에 따라 범주를 발전시켜 나갔다(Corbin & Strauss, 2008). 축코딩은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연결하는 단계로 도출된 범주를 속성과 차원의 수준으로 지속해서 발전시키며, 각 범주 간의 관련성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파악했다(Strauss & Corbin, 1998). 축코딩에서는 근거이론의 고유한 분석 도구인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로 연결했고, 이렇게 도출된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이 창업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의 경험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6. 연구의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Guba와 Lincoln(1989)이 제시한 기준인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적용했다. 첫째,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개념과 범주들이 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범주들의 연관성은 적절한지 등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 결과에 반영했다. 둘째,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창업결정 대학생에게 연구결과가 자신들의 경험에 적용되는지 확인했다. 셋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주제 구상 단계부터 연구 과정 동안, 근거이론 및 질적 연구방법 전문가 2인(교육학과 대학교수 1인, 연구법인 질적연구소 대표 1인)과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내용을 확인, 수정 및 보완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의 분석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Guba & Lincoln(1981)은 질적 연구에서 중립성의 확보는 앞서 제시된 사실적 가치, 적용의 가능성, 일관성이 확립될 때 획득된다고 봤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앞서 제시한 다양한 삼각검증을 통해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Ⅲ. 연구 결과

1. 자료의 개념 및 범주화

개방 코딩은 근거자료를 통해 개념을 발견하고 명명하는 과정에서 개념 간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사고나 사건, 물체, 작용/반작용을 하위범주로 묶은 후 범주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즉, 원자료의 단어, 줄, 문장 및 문단 단위, 문서 전체를 정독 후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의미 있는 개념과 하위범주 및 범주를 생성하고 그 개념적 관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개방 코딩을 통해 참여자들의 창업결정과정을 살펴본 결과, 420개 개념, 40개 하위범주, 16개 범주가 생성됐다. 도출된 범주는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의해 구조화했다.

표 2
자료의 범주화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인과 조건	줄 세우기 교육에 대한 좌절	사회적 성공의 관문, 대학이라는 신화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자괴감과 자기혐오
	규격화된 인물을 길러내는 학교교육체제	전략과 방향 없는 입시 중심의 공부
		다양한 진로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제한적인 환경
학과 선택의 절대기준, 취업	청년실업 현실 및 취업 문제에 압도됨	
맥락 조건	대학입시 결과에 대한 자기수용 여부	목표상실로 인한 허망함으로 무의미한 대학 생활
		대학입시 재도전, 더 좋은 학교 입학
		입시결과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함
		입시결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함
	현재 전공과 맞지 않는 나의 모습 직면	학과에 대한 흥미와 적성이 없음
		자신의 진로를 다시 알아봐야 한다는 압박감
	내면화된 사회적 기준의 전복	취업 중심 대학 생활에 대한 회의감
사회적 기준에 따른 괜찮은 직업의 거절		
우리나라 취업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중심 현상	좌절 경험을 통한 대안 찾기, 창업이라는 진로 발견	흥미, 적성을 알아볼 기회를 가짐
		흥미, 적성 탐색과 인지를 기반으로 한 진로선택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며 시야가 넓어짐
		대외활동을 경험하며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됨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업이라는 새로운 진로를 알게 되고 관심으로 이어짐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업의 실제 과정과 방법을 알게 됨으로써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됨
중재 조건	창업생태계 호전	창업을 장려하는 창업 지원환경
	정상성의 신화에 따른 흔들림	취업을 선택한 대학생들과 다른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부담
		창업결정에 대한 가족 및 친·인척 등의 부정적 시선
	가족 부담의 해방	가족의 허용적 분위기
부모 부양에 대한 자유		
작용 / 상호 작용	창업의지에 날개 달기	가족 및 친인척들의 지지
		창업 준비를 함께할 수 있는 동료와의 만남
		창업을 권유하고, 조언을 해주는 멘토의 존재
	창업가 접촉 기회 및 긍정적 피드백	가족, 친인척을 통해 성공한 사업가를 자연스럽게 접함
		창업가들을 만날 기회를 가짐
	창업가로서의 능력 검증	창업가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외활동에 참여함
여러 대외활동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사회적 자원의 적극적 동원	정부 및 대학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창업 준비에 도움을 받고 있고,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	
	대학교 내 창업지원 기관과 연계되어 자원을 활용하고 있음	
결과	창업을 통해 나의 길 가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통로가 창업이라고 생각함
		새로운 분야의 개척자가 되고 싶음
		성공 여부를 떠나 창업에 도전해보고자 함
		자신의 전공, 흥미와 적성을 살려 창업하기
	현실적 창업토대구축	창업 선행조건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직장 경험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할 계획임

2. 대학생 창업결정과정의 패러다임 모형

1)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 현상이 일어나는 계기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선행사건, 일 등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조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6). 본 연구의 중심현상인 ‘좌절 경험을 통한 대안 찾기, 창업이라는 진로 발견’은 ‘줄 세우기 교육에 대한 좌절’, ‘규격화된 인물을 길러내는 학교교육체제’, ‘학과선택의 절대기준이 된 취업’이라는 인과적인 상황에 의해 유발된다.

(1) 줄 세우기 교육에 대한 좌절

한국의 줄 세우기 교육은 학업성적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로 학생들을 평가한다. 참여자들은 성공의 관문이 대학이라고 생각했기에 절대적인 시간을 공부에 전념했다. 대학입시 결과는 그동안의 삶에 대한 평가이자, 미래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대학입시에 대한 중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상급학교 진학, 학업성적 향상을 가장 자랑스러운 경험, 입학 실패와 성적하락을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봤다. 즉, 그들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자괴감과 자기혐오를 가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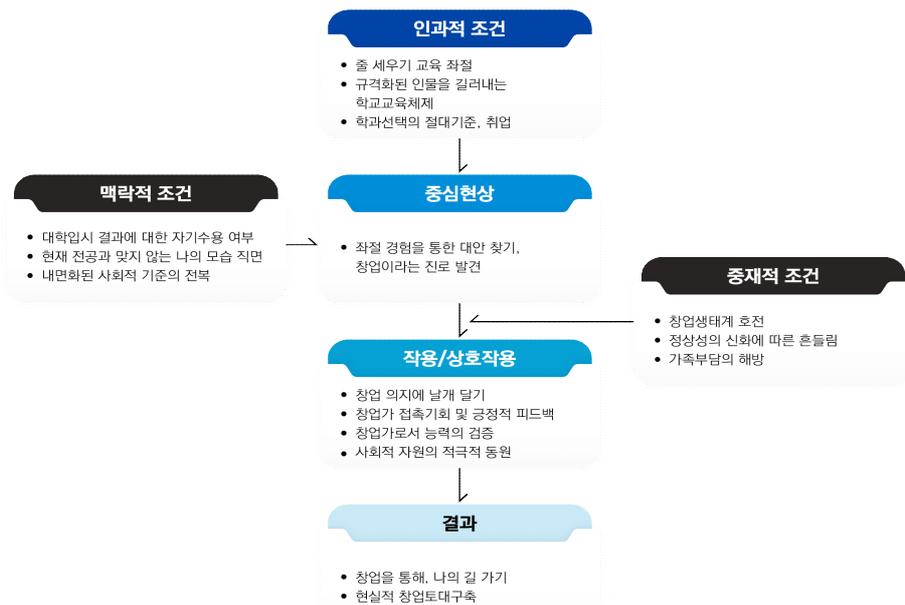


그림 1. 대학생 창업결정과정의 패러다임 모형

(2) 규격화된 인물을 길러내는 학교교육체제

참여자들은 규격화된 인물을 길러내는 한국의 학교교육체제 속에서 개인 삶에 대한 전략과 방향 없이 진로결정의 시기를 맞이한다. 한국의 교육은 학업성적이 좋은 ‘범생이’들만 그 존재가치를 인정하기에,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처럼 1mm 차이의 다른 상품(개성)도 허용되지 않는다.

수업시간에 맨날 자고 수업 끝나면 애들이랑 나가서 놀았죠. (웃음) 학교 수업에 대해서도,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인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자는 애들 정말 많았고, 요즘도 EBS 다큐 보면 수업시간에 다 자잖아요.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애들이 개성이나 다양성들을 다 잃어가고, 공장처럼 똑같이 만들려는 교육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교육에 회의감을 많이 느꼈어요. (참여자 13)

(3) 학과 선택의 절대기준, 취업

참여자들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과 취업 문제의 사회적 불안과 공포에 압도되었다. 즉, 그들은 취업이 잘되는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는 암묵적 분위기 속에서 성적에 따라 진로를 결정했다. 심지어 그들은 대학에 입학해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취업 준비를 위한 학점관리, 스펙 활동에 돌입했다.

2)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 : 현상발생과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조건이나 현상이 나타나는 가족·사회·문화적 배경 또는 맥락을 뜻한다(공윤정, 이은주, 2014; Strauss & Corbin, 1998). 대학생의 창업결정과정에서 맥락적 조건은 ‘좌절 경험을 통한 대안 찾기, 창업이라는 진로 발견’이라는 중심현상의 발생과 창업결정과정의 전체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배경 요인은 ‘대학입시 결과에 대한 자기수용 여부’, ‘현재 전공과 맞지 않는 자기 모습 직면’, ‘내면화된 사회적 기준의 전복’으로 수렴할 수 있다.

(1) 대학입시 결과에 대한 자기수용 여부

참여자들은 대학입시 결과의 인식 및 평가 여부(성공, 실패)에 따라 대학 생활 및 학과 소속감, 만족도, 적응 정도 등에 차이가 있었다. 그들은 대학 평판을 기준으로 성공적인 삶을 예측했기 때문에, 대학입시 결과를 수용하지 못했을 때 좌절감과 상실감을 크게 느끼고, 대학에 적응하지 못했다. 반면, 대학입시 결과를 수용하려고 노력했던 참여자들은 대학 생활 및 학과 소속감과 참여도, 만족도, 적응 정도가 높았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재수를 통해 대학입시에 재도전하였고, 결국 자신이 만족할만한 대학에 입학했다는 점이다.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고자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도전하는 태도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현재 전공과 맞지 않는 자기 모습 직면(confrontation)

성적과 취업을 기준으로 학과를 선택했던 참여자들은 대학교 전공 수업을 시작한 후에야 그 전공이 실제 자신의 특성이나 적성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게 된다. 즉, 그들의 전공 선택은 충분한 자기성찰, 진로준비과정을 거친 성숙한 결정이 아니었기에, 참여자들은 자신의 적성 및 여러 가지 여건들이 대학 전공과 불일치하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전공과 관련된 진로목표를 설정할 수 없었고, 초점 없는 대학 및 학과 생활을 이어가던 중, 결국 진로 재탐색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다.

(3) 내면화된 사회적 기준 전복

참여자들은 내면화된 기준들에 대해 반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들은 사회적 기준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들은 대학입시를 위해 공부에 전념했지만, 대학에서마저 여전히 제대로 된 방향과 목적 없이 취업 준비(학점, 스펙 등)를 하는 자신, 선·후배, 동기들을 보며 회의감을 느꼈다. 결국, 그들은 그러한 삶이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님을 깨닫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심한다.

3) 중심현상(central phenomenon):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중심 사건(문제)

중심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와 관련되어,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조절하거나 해결하려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중심현상을 ‘좌절 경험을 통한 대안 찾기, 창업이라는 진로 발견’으로 보았다.

(1) 좌절 경험을 통한 대안 찾기, 창업이라는 진로 발견

참여자들은 진로결정과정에서 ‘좌절 경험’을 했고, 이를 통해 대안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며 여러 진로 대안을 탐색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파악하려 했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창업이라는 진로를 발견’하게 되고, 이는 창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으로 발전하게 됐다. 그들은 창업에 관해 알아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자신의 흥미, 적성을 알아볼 기회를 가짐

참여자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알아볼 기회를 갖고자 먼저 대학교에 있는 자원을 활용했다. 그들은 대학교에 개설되어있는 다양한 교양수업을 수강하며 자신이 어느 분야에 관심과 적성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를 통해 심화된 지식에 대한 열망을 확인한 경우, 관련 전공 수업을 수강하거나 혹은 복수전공과 같은 학사제도를 활용했다. 대학교 교양수업, 복수전공 및 부전공 등의 학사제도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진로를 재탐색할 수 있는 대안이 되었고, 대학 생활 만족과 적응을 높이는 강력한 촉진제가 되었다.

경영학과는 부모님 추천으로 온 거죠. 저는 대학 들어와서 경영학과 강의만 듣지 않았어요. 나 자신을 알고 싶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서 프로그래밍 과목도 들어봤고, 거기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재밌더라고요. 맨 처음은 교양과목이었는데 재미있어가지고... (중략) 그런데 제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하는 게 내 적성이지, 꼼꼼하게 언어를 익혀서 하는 건... 오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내 특성이 아닌 거 같다. (참여자 13)

한편, 참여자들은 대학교 밖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 대외활동을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알아보기 위한 좋은 도구로써 적극 활용했다. 참여자 7은 학과에 적응하지 못해 많은 시간 방황했지만, 우연히 참여하게 된 대외활동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이른바 ‘꿈’을 찾게 되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도 하고 싶은 걸 찾지 못하고, 꿈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대학만 그냥 다니고 있다가, 3학년 2학기에 처음으로 마케팅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서 허락 맡아서 청강을 들었는데, 3학년 동안 배웠던 수업 중에 그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딱 현타가 온 거죠. ‘난 진짜 뭐지?’ 하면서 ‘휴학을 해야겠다. 휴학을 하고 이제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커서... 그래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대외활동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찾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지원하게 된 게 그거였어요. 정말 우연치 않게 들어간 활동이 저를, 제 인생을 완전 바꾼 거죠.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졌죠. (참여자 7)

자신의 흥미, 적성에 대한 탐색과 인지, 이를 기반으로 한 진로선택

자신의 흥미, 적성에 대한 탐색과 분석을 기반으로 대학, 학과를 선택하여 자신의 길을篤심 있게 가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큰 흥미를 갖거나 뛰어난 적성을 드러냈는데, 이는 가족 및 친척의 직업적 배경과 유전적 재능에 기반했다. 그들은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관련 적성을 더욱 개발하거나, 다른 분야와 융합해 창의적인 길을 만들어가고자 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예술을 좋아해서... 할머니가 일제 때 그림, 무용, 장구도 치고 이러셔서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도 있었고... 어머니가 손재주가 좋으셔서 옷도 만들어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원래 화가가 꿈이었는데 이제 중, 고등학교 때도 마음에는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중략)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선생님과 진로상담을 해야 해서 일주일 정도 제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다 적다 보니까 미술이랑 연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경영이나 경제, 사회하고 관련된 미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결정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과를 선택하면서 컬러 마케팅을 고르게 되었어요. (참여자 10)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통해 시야가 넓어짐

참여자들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며 시야를 넓혀갔다. 그들은 아르바이트, 여행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대기업 인턴십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바 같은 걸 많이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굳이 취업에 연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돈을 버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걸 봤거든요. 고기집도 월 1,000만원, 2,000만원씩 벌 수도 있고. (중략) 그냥 돈 벌려고 대기업 들어가는 건 되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주변을 보면 그냥 공고 나와서 바로 삼성 제조업 쪽으로 취직을 해서, 같은 나이에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친구들도 보니까, 대기업 사원이 목적인 건 진짜 무의미한 것 같다. 커리어우먼이 꿈이면 인정하는데... (중략) 남이 시는 걸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그렇게 시는 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참여자 2)

대외활동을 통해 실무적인 일을 경험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됨

참여자들은 대기업 인턴십, 공모전, 경진대회, 봉사활동 등과 같이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실무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특성을 알아갈 수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작은 성취 경험들을 통해 유능감을 갖게 되고, 이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향상시켰다.

답이 없는 대외활동이나 공모전 같은 걸 할 때도 현업에 계신 분들이 멘토링을 해주는데, 대기업에서 대외 활동할 때는 홍보해봐라든지, 이 기술을 적용시켜서 만들어 설명을 해봐라, 엔지니어나 마케팅 부서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 노하우를 하나씩 던져주면 만들어 가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3달 동안 프로젝트 한 것이 더 머리가 많이 트이는 것 같고. 새로운 것 알게 되고 흡수하고, 저만의 방식대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설득이나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진짜 공부지!'라는 생각을... (참여자 9)

창업교육, 창업동아리를 통해 창업이라는 진로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됨

참여자들은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진로특강 등을 통해 창업이라는 새로운 진로 경로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진로결정 = 취업’과 같이 취업 중심의 진로만을 생각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참석한 진로특강, 창업 수업, 창업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창업이라는 새로운 진로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실, 그들이 이전까지 창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이유는 창업이라는 진로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 것이다.

창업교육, 창업동아리를 통해 창업 과정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됨

참여자들은 대학교 내·외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에 참여하며 보다 구체적인 창업 실제 과정과 방법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 1은 대학교에 개설된 창업 수업을 수강하며 직접 팀원들과 창업 실전을 수행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이는 창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교수님이 창업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조를 짜서 창업 아이템에 대해 선정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쓰고 앞에서 발표해요. 제가 생각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중략) 제가 생각하는 것에 감혀 있지 않고 전문적인 피드백, 생생한 상호작용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4)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현상의 변화에 개입된 요인

중재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에 해당하는 여러 변수가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변화시키는 데 작용하는 조건을 의미한다(박승민 외, 2012; Strauss & Corbin, 1996). 본 연구에서는 ‘창업생태계 호전’, ‘정상성의 신화’, ‘가족부담에서의 해방’이 ‘좌절 경험을 통한 대안 찾기, 창업이라는 진로 발견’이라는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 창업생태계 호전

한국의 창업생태계 형세의 호전은 대학생들이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정부는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통해 청년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 정상화(normality) 신화에 따른 흔들림

참여자들은 대다수 학생들과 다른 진로결정을 내린 것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꼈다. 그들은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느꼈고, 이로 인해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집단주의(collectivism) 문화권에 살고있는 한국인들은 남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대학입학, 취업, 결혼, 출산과 같은 인생 여정에서 모두가 표준화된 코스를 밟아야만 한다는 '정상화 신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만 같았다.

(3) 가족 부담에서의 해방

참여자들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 즉, 참여자 12명(75%)이 둘째 자녀였는데, 그들은 만이와 달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허용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 또한 그들은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창업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구술했다.

5)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 현상의 해결(해소)을 위한 대처전략

작용/상호작용이란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실제 행동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사람들이 행동할 때, 우리는 이들이 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문제 또는 쟁점에 반응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사람들이 마주치게 되는 상황, 문제, 쟁점을 다루는 방식(how)을 작용/상호작용이라 말한다. 다시 말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를 말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현상을 어떤 방식으로 다듬어 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좌절 경험을 통한 대안 찾기, 창업이라는 진로 발견'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의지에 날개 달기', '창업가 접촉 기회

및 긍정적 피드백', '창업가로서의 능력 검증', '사회적 자원의 적극적 동원' 작용/상호 작용 전략을 사용하였다.

(1) 창업 의지에 날개 달기

참여자들은 창업결정에 대한 가족 및 친·인척들의 심리적 지지, 창업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료의 존재, 창업을 권유하고 조언해주는 멘토로 인해 정서적인 안정을 가졌다. 이로 인해 그들은 창업 준비 활동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추진력을 갖게 되었다.

가족 및 친·인척들의 지지

가족 및 친·인척들의 지지로 창업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처음에 부모는 창업결정에 반대했고, 그들이 전문직에 취업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대학입학 후 진로 문제로 방황하던 그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점차 그들을 신뢰하게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창업결정에 대한 부모의 수용과 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부모의 심리적인 지지 기반 위에서 창업 의지를 확고히 하며 창업 준비 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

내 인생이니까, 대기업 들어간다고 해서 억만장자 되는 것도 아니고, 박봉 받으면서 일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고 어필을 했는데, '그럼 일단 해봐라.' 하시면서 부모님도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창업을 해보고 안 되면 스타트업 들어가서 다시 창업을 하고, 이런 것도 괜찮다고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굳이 대기업에 연연해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중략) 부모님께 창업하겠다고 선언만 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말씀드리고 PPT도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납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창업 준비를 함께할 수 있는 동료의 만남

참여자들은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등을 통해 관심 분야가 같은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창업동아리에서 다양한 전공의 선·후배, 동료들과 소통했다. 그들은 팀원들과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협력 과정에서 마음이 맞는 창업 동료를 선택했다. 그들은 창업 준비를 함께할 수 있는 동료가 있기에 창업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창업을 하려는 학생은 적은 거 같아요. 그런 애들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중략)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들고, 정보를 얻어야 되고, 이 박람회 저 박람회 가보고... 그러면 만나는 사람을 또 만나고, 알고 보니까 학생 커뮤니티가 있었고, 그렇게 연결해서 알게 되는 거죠. (중략) 지금 대표로 있는 블록체인학회는 대학 동아리인데 서울권에 많은 학교들이 있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저희 학교끼리 모이고, 주말에 한번 연합학회 회원들이 모여요. (중략) 이제 학회 내에서도 너무 학교에만 있지 말고, 우리도 나와서 한번 프로젝트를 직접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서... (참여자 9)

창업을 권유하고, 조언을 해주는 멘토의 존재

참여자들은 창업을 권유하고, 조언을 해주는 멘토가 가까이 존재했기에 창업이라는 진로를 생각해보거나, 창업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고 구술했다. 참여자 8은 캐나다에서 우연히 만난 사업가를 통해 처음으로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고려하게 되었다. 그는 성공한 창업가와 가깝게 지내며 창업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그는 창업을 권유하고, 여러 조언을 해주는 멘토의 존재 덕에 자신감을 가지고 창업을하기로 결정했다.

제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갔었는데 거기서 만난 형이 해외 여러 나라에서 여행사업을 하고 계신데 부자였어요. 저한테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은 어려운 거 아니다.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심어줬어요. 돈을 버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다, 젊은 나이에 도전할 수 있는 거는 한국권은 아니다, 인도차이나반도 쪽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는 게 큰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세요. 그게 커져서 러시아, 일본에도 지구가 있는 분인데... 한국은 너무 경쟁도 많고, 네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성공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만큼의 노력을 다른 데서 해봐라. 지금 영어는 어느 정도 하니깐 다른 외국어를 조금만 더 배워서 개도국에서 한번 도전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참여자 8)

(2) 창업가 접촉 기회(역할모델) 및 긍정적 피드백

참여자들은 어려서부터 가족, 친·인척을 통해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관찰했다. 또한 창업교육 현장, 서적 등 직·간접적으로 창업가들을 접하며 창업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었다. 성공적인 창업가인 역할모델의 존재로 창업 동기는 더욱

확고해졌고, 창업과정에서 실제적인 조언과 도움을 얻었다.

가족, 친·인척을 통해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접함

흥미로운 점은 참여자 절반 이상의 부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을 하는 친·인척들 역시 많았다. 그들은 가족의 사업 환경 속에서 창업 성공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그들은 성공한 가족, 친·인척 사업가의 존재를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그들 역시 그렇게 되기를 희망했다.

사실 아빠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아빠 성향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진취적이세요.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시고... 쫓히면 정말 미친 듯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맨날 아침 6시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예전에 가끔 아빠 사무실도 데려가 주시고. '아빠는 그런 직장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사업가나 CEO라는 게 뭔지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성공한 창업가들을 만날 기회를 가짐

참여자들은 주변에 성공한 창업가가 없더라도 다양한 창업교육 강연장 혹은 성공한 창업기업(창업가) 서적을 통해 창업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 그들은 창업 강연 등을 통해 창업가들을 만나며 창업가 특성(도전정신, 주도성, 창의성 등)과 긍정적인 측면, 예를 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점, 직장인과 다른 삶의 방식, 경제적인 여유 등에 대해 매력을 느꼈다.

성공한 창업가들을 보면서 '멋있다!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하는데... 사실 최근에 봤던 분들 중에 제일 멋있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아주 성공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빠른 나이에 경제적 은퇴를 하시고, 별 만큼 다 버시고 이제 진짜 자기가 온전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예 창업교육 쪽으로 전향하신 분이거든요. 예비 창업가들한테 사고방식이나... 저도 나중에는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나이가 40대가 된다면, 30대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참여자 2)

(3) 창업가로서의 능력 검증

참여자들은 창업가로서의 역량 향상 및 검증을 위해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창업 지원사업 등 여러 활동에 참여했다. 그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짧은 기간 동안 창업가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창업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다.

제가 너무 자신만만한 것일 수 있는데, 만약 지금 취업을 준비해라 그러면 취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외활동이나 공모전을 몇 번 나갔었는데 서류 우대나 면제를 받은 게 몇 곳 있어요. 그것을 받으려고 나갔다가보다는 단기간에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공모전에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나갔고요. 창업을 실패하더라도 또다른 창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공모전이라는 게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주제에 알맞은 아이디어를 내서 서류부터 시작해서 구현을 하는 마지막 단계를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발표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자 9)

(4) 사회적 자원의 적극적 동원

참여자들은 자원을 적극 동원해 창업을 준비하고자 했다. 그들은 정부 및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 사업 및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했다. 그들은 창업자본금, 공간 등을 지원받고, 창업실행에 필요한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창업지원 정보를 매일 검색하고 신청했다. 하지만 대학생으로서 창업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등은 어려웠기에 실패를 거듭했다. 참여자 9는 대학교 창업지원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는 대학교 내에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놀랐고, 앞으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블록체인 학회가 학교별로 있고 학회장들이 많은 실패를 하니까. 이상에 사로잡혀 있다가 나왔을 때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나도 좀 있으면 해야 하는데, 그 친구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지도 않고 뭐가 문제가 있지?' 물어보려고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중략) 학교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돈이 모였을 때 다시

창업지원센터를 찾아갔거든요. 되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를 딱딱 알려주고 그 두 개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시스템이 그 정도 되어있다는... (중략) 케이스 스터디도,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이런저런 케이스 이야기해주시고, 앞으로 창업할 때 이런 조짐이 있으면 잘못되는 거다, 알려주셔서 자주 찾아가고 있어요. (참여자 9)

6) 결과(consequence): 중심현상에 대처하며 적응해 온 결과

결과는 의도되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현상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조건 간의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박승민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중심현상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작용/상호작용으로 대응하였는데, 이를 통해 점차 자신의 창업결정에 대해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며 창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참여자들에게는 ‘창업을 통해 나의 길 가기’, ‘현실적 창업토대 구축’이라는 창업결정의 결과가 나타났다.

(1) 창업을 통해 나의 길 가기

참여자들은 성공한 가족 및 친·인척 사업가, 창업가와의 접촉 기회 및 긍정적 피드백, 창업가로서의 역량향상 노력과 검증, 사회적 자원의 적극적 활용 등으로 창업결정을 하게 되고, ‘창업을 통해 나의 길’을 나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통로가 창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려는 열망이 강했다. 그들은 기존에 아무것도 없던 환경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거나, 모임의 대표로서 사람들을 이끌고자 하는 주도적인 성향이 강했다. 그들은 도전적인 기질이 강했고, 무엇보다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창업 분야와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흥미, 적성 및 전공과 연계된 창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2) 현실적 창업토대 구축

참여자들은 현실적 창업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창업실행의 필수조건이자 선행조건인 창업 아이템, 자본금, 전문 인력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대학생들이 어떤 경험과 과정을 통해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고자 실시하였다. 또한 이들의 경험으로부터 대학생들의 창업결정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실제이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진로교육 및 상담 차원의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전략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한국의 사회·문화 환경에서 발견된 연구 결과와 그 시사점을 패러다임 모형(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청소년기 한국의 줄 세우기 경쟁에 좌절했고, 그들의 미성숙한 진로결정은 공장의 생산품과 같이 규격화된 인물을 길러내는 한국의 학교 교육체제, 안정 지향적인 문화 속에서 대학 평가 순위(평판)와 취업이 잘되는 학과를 기준으로 진학을 선택하는 인과적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의 학교 교육 안에서 학생평가방식은 참여자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자아개념 및 자아정체성 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그들은 진로결정의 시기에 자기 및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자기에게 맞는 학과 및 대학을 선택할 의사결정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 목표 설정 등 진지한 성찰과 고민의 시간 없이 진로결정의 시기를 맞이했다.

둘째, 대학생들이 새롭게 진로결정의 과정을 밟기로 결심한 배경, 맥락적 조건은 대학입시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거나, 실제 대학에서 전공 수업을 수강하며 선택한 전공이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등에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또는 자신의 진로결정이 사회, 학교, 부모 등 타인이 정해준 기준과 기대에 기인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본인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 진로결정자였지만, 미성숙한 결정으로 인해 학과와 연관된 진로 목표 및 미래계획을 수립하거나 진로 준비를 해나갈 수 없었다. 그들은 대학에 입학해 여러 환경적 변화 속에서 진로 발달의 위기를 겪으며, 성숙한 진로결정의 전제 조건인 개인 및 직업적 특성에 대한 이해, 관련 직업정보가 부족했고, 편파적인 직업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진로결정이 자기성찰과 탐색 과정을 거친 타당한 결과인지 검토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셋째, 대학생들이 창업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좌절 경험을 통한 대안 찾기, 창업이라는 진로 발견’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대학교 내·외 인프라를 활용해 자신의 흥미, 적성 등을 알아볼 기회를 갖고, 다양한 직업 세계와 사람들을 접하며 여러 삶의 방식과 가치관, 기준 등을 충분히 탐색한 후, 자신의 신념이나 직업적 방향과 진로 목표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그들은 여러 직업적 방향과 진로 가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창업이라는 매력적인 진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대학생 시기의 성공적인 진로결정은 청소년 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ego-identity) 성취와 관련되어 있음이 여러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통해 강조되어왔다(Harren, 1979; Holland & Gottfredson, 1980; Super, 1957; Erikson, 1968; Skovholt & Morgan, 1981; Blustein et al., 1989). 특히, 대학생 시기는 자아정체감에 있어 가장 광범위한 발달이 나타나는 시기(Marcia et al., 1993)로, 진로영역에 있어서도 다양한 내적, 환경적 위기를 경험하고 직업정체감을 성취해 직업발달을 이루는 시기라고 했다(Tiedman & O'Hara, 1963). 대학생들은 초중고 시기에는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가능성에 도전하며, 폭넓게 직업적 대안을 탐색하고, 적절한 단계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발달과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들은 진로를 다시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성취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향상되었다. 즉,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기대 수준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창업이라는 진로결정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많은 연구에서 전공과 직업 선택 및 진로결정과 같은 영역에서 결정적인 예언력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손진희, 2010b; Taylor et al., 1983; Post-Kammer et al., 1985; Betz et al., 2000). 마지막으로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 개인은 진로 목표가 수립되었을 때, 이것을 달성하려는 동기가 생긴다고 한다. 즉, 성격, 능력, 학습경험, 그리고 사회적 지원과 같은 요인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흥미가 높아지면, 동기가 부여되어 진로 탐색 행동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진로결정을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Lent et al., 2018). 이때 일반적인 학습경험보다는 진로 목표와 관련된 학습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들에게는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이 창업이라는 진로에 대해 호기심과 흥미, 동기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넷째, 창업결정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 즉 중재적 조건은 ‘창업생태계 호진’, ‘정상성의 신화’, ‘가족 부담의 해방’이었다. 한국에서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비정상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다. 그들은 가족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느꼈고, 이는 창업결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한편, 대학생들의 창업결정을 촉진하는 요소로는 가족 부담에서의 해방이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둘째였는데, 부모는 첫째와 다르게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또한 그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부모로 인해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웠고, 이로써 창업결정을 하는데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다섯째, 대학생들이 창업이라는 진로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후 어떤 과정과 경험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주요 요인과 행동전략을 살펴본 결과(작용/상호작용), 사회적 지지체계와 역할모델의 존재, 창업가로서 자기 능력의 확신 및 검증, 사회적 자원의 적극적 동원 활용이 그 요인과 전략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가족과 집단의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collectivism) 문화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업 세계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 흥미, 상호작용이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고 구성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Blustein, 2011; Blustein, et al., 2004; Gergen, 2009). 이는 기존 서구사회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개발된 진로결정이론은 독특한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한국의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대학생들은 진로결정과정에서 특히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대학 및 학과 선택에 부모의 개입과 승인은 절대적이었고, 이후 자신이 원하는 창업이라는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 나가는 데도 부모의 수용과 지지, 동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는 한국의 독특한 부모-자녀 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분리’되고 개인의 ‘자율성’을 찾는 것이 진로교육 및 상담 목표가 되는 것, 다시 말해 부모에 대한 ‘의존’을 진로 미성숙으로 보는 서구 진로결정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선혜연 외, 2004; 임연 외, 2001). 국내의 여러 진로결정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진로 선택에 있어 부모의 승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임은미, 2011; 하정, 2007; 황매향 외, 2013).

대학생들에게 창업 준비를 함께할 수 있는 동료의 존재는 창업 의지와 결정을 확고히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이다. 진로결정 및 미결정과 관련된 초기의 연구들은 개인의 인지, 정서와 같은 변인에 집중했지만, 이후 연구에서는 부모, 동료, 친구,

교수, 교사, 선후배 등 대인관계 변인이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임은미(2011)는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에서 같은 분야에서 진로 준비를 열심히 하는 동료들의 존재는 긴장이 풀어질 때 다시금 동기를 유발시키는 강력한 촉진제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생들은 창업 멘토의 존재 역시 창업결정을 확고히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교수, 창업가 등의 멘토를 통해 창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데 지속적인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창업 멘토는 심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까지 주었다. Jeong, Bahn(2008)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결정 및 성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서적,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세력을 언급하고 있다. 개인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인력은 창업에 있어서 지원과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며,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밑거름 역할을 한다(Manning, Bieley & Norburn, 1989; Yoon, 2012b).

대학생들에게는 성공적인 역할모델이 존재했고, 이는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가족, 친·인척 등 성공한 창업가가 있는 가정환경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어려서부터 관찰했고, 뿐만아니라 창업교육 현장에서 창업가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역할모델로 삼았다. 성공적 역할모델의 존재는 창업 의지 및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창업가들의 행동을 관찰 및 모방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며 창업을 실행해나갔다. 흥미로운 점으로, 연구참여자의 과반수에게 성공한 창업가(전문경영인)인 가족, 친·인척이 있었다는 것이다. 가족의 사업적 배경, 특히 부모의 창업 경험이 개인의 기업가적 태도의 발달과 창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조영조 외, 2016; Morris et al., 1995; Shapero et al., 1982). Morris & Lewis(1995)는 가족 배경이나 어릴 적 경험은 기업가적 태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대학생들은 창업가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개발 및 검증하면서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하는 데 더욱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창업과 관련해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경진대회, 공모전, 창업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참여 활동에서 얻은 성과물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성취감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창업 실행에 대한 열망을 더욱 갖게 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능력, 노력으로

행동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내적 통제 소재’를 주기에 창업에 대한 자신감,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켰다. 불확실성과 위험이 항상 뒤따르는 창업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적 통제 소재를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Brockhaus et al., 1986; Rotter, 1966). 창업가의 특성 중 하나인 내적 통제 소재는 창업 의지, 창업 성공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강재학 외, 2016).

대학생들은 창업을 진로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창업을 장려하는 정부 및 사회, 대학의 지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그들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으로 작동했다. 이는 그들에게 창업에 대한 위험 및 책임 부담을 줄여주었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창업 자본금, 창업 공간을 지원받고, 창업 실행에 필요한 실무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여섯째, 대학생들은 결국 창업을 통해 자신의 길을 갈 용기를 얻었고 현실적인 창업 준비를 위한 토대(창업 아이템, 자본금, 전문 인력)를 마련해나가고 있었다. 주목할 점으로는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한 대학생들에게는 주도성, 도전정신, 성취욕구, 혁신성 등의 기업가적 특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려는 열망이 강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창업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업가적 성향은 많은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들에서 다루어졌고, 창업자와 비창업자를 구별짓는 뿐만 아니라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김완재 외, 2007; 박경배 외, 2015; 정성한, 김해룡, 2001; Yan, J., 2010). 이렇듯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한 대학생들은 그들만의 심리적 특성, 기업가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진로 교육 및 상담 연구와 실제에 주는 시사점과 의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취업, 대학원 진학과는 다른 진로의 행보를 보이는 대상인 창업결정 대학생의 특성에 대해 세분화해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즉, 연구대상의 특성과 당면과제에 따라 진로결정의 양태가 매우 달랐고, 이에 따라 대학의 진로 교육 및 상담 차원에서 ‘차별적인 진단과 차별적인 처치’가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교에 진로교육 및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전문가들은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장치와 그에 따른 차별적인 전략을 설계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창업결정 대학생들에게는 기

업가적 특성 및 기업가정신이 확인되었던바, 이를 측정하는 기업가정신 심리검사를 통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업에 대한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예비) 창업가 모임, 창업가 멘토링, 창업 컨설팅 등 취업결정 및 준비 학생과는 다른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창업결정 대학생의 독특성과 복잡성을 밝힘으로써 진로의 발달단계별 접근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진로 발달을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을 포함한 진로발달에 대해 적절한 개입과 조력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근거와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데 가치가 있다. 그동안 창업결정 대학생들은 경영학 및 벤처창업 분야에서 창업 의지를 향상시키거나 창업 성공 요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및 대학은 이들을 위한 창업 실행에 관한 기술적이고 물리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창업결정 대학생을 세심하게 고려한 진로지도 전략이 필요함을 진로교육 및 상담 차원에서 공론화하였다. 대학에서는 창업결정 대학생들이 확실한 진로 목표와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진로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탐색하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자아정체감, 직업정체감, 자기효능감 등 심리 및 진로 발달이 함께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발달과정을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고찰한 질적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시 말해, 서구 사회 및 진로결정이론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은 한국사회의 가족 및 문화적 요소들, ‘집단주의’, ‘안정지향성’,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 ‘부모’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으로서,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이론의 틀로서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학교 진로 교육 및 상담 담당 기관, 전문가들은 창업결정 대학생들이 남들과 다른 진로결정에서 겪는 심리적인 갈등 안에서 그들의 진로결정을 격려해줄 수 있는 존재, ‘사회적 지지체계’(교육자, 상담가, 창업가, 창업 동료 등)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진로 문제를 두고 자신의 부모와 갈등하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를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한국적인 심리상담 방법을 개발해 이를 잘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결정 대학생을 근거이론 방법으로 접근한 초기 연구로서 한

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는 창업결정과정 이론 모형을 조금 더 정교화해서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창업결정 대학생들의 특성과 창업결정의 정도 및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측정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는 창업결정 대학생의 기업가적 성향을 진단하고, 창업 능력 및 개발이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여 창업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 진로 교육과 상담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재학, 양동우 (2016).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 493-507. doi:10.5762/KAIS.2016.17.1.493
- 김완재, 정화영 (2007). 창업자 특성과 소기업 사업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2(3), 33-60. doi:10.16972/apjbve.2.3.200709.33
- 공수연, 양성은 (2012). 청년구직자의 취업준비 과정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2), 47-64. doi:10.7466/JKHMA.2012.30.2.047
- 공윤정, 이은주 (2014). 외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대학생의 진로적응과정. **상담학연구**, 15(5), 1771-1789. doi:10.15703/kjc.15.5.201410.1771
- 김지현, 김계현, 유정이, 황매향, 노경란 (2007). **부모를 위한 자녀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김효정, 김봉환 (2011). 청년구직자들이 진로결정 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사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85-810.
- 남경민, 유성경, 하정, 강혜원, 곽형선 (2010). 진로상담: 학업우수 남자고등학생의 진로결정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1(2), 775-793. doi:10.15703/kjc.11.2.201006.775
- 박경배, 심상오, 정성영 (2016).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30(1), 21-41. doi:10.34274/krabe.2016.30.1.002
- 박승민, 김광수, 방기연, 오영희, 임은미 (2012).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한 상담연구과정**. 서울: 학지사.
- 배병윤, 이주현 (201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환경 조성방안.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5-59.
- 선혜연, 김계현 (2008). 청소년 진로의사결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관여방식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92(2), 161-179. doi:10.15753/aje.2008.9.2.008
- 선혜연, 황매향 (2004). **직업포부발달이론의 최근 연구동향**. **학생연구**, 38(1), 58-68.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 손진희 (2010a). 여자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 요인 탐색: 청소년기 학업우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35-457.

- 손진희 (2010b). 청소년기 학업우수 남학생의 대학 재학시 진로결정 영향요인. **청소년 상담연구**, 18(2), 187-204.
- 이민선, 이윤정, 문화강, 이에영 (2010). 서울지역 의류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4(11), 1870-1879.
- 이영선, 김정희, 이영순 (1999). 진로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및 특성 불안의 관계. **한국진로상담학회지**, 4(1), 137-161.
- 임언, 정윤경, 상경아 (2001). **진로성숙도검사 개발 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은미 (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과 개입요인탐색. **상담학연구**, 12(2), 447-466.
- 조영조, 이보영 (2016). 사회적환경이 대학생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4), 17-25. doi:10.16972/apjbve.11.4.201608.17
- 조지혜 (2019b). 예비창업가 대학생의 창업결정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20(2), 229-251. doi:10.15703/kjc.20.2.201904.229
- 전방연 (2016). **지방사립대학 졸업생의 희망 대기업 취업성공과정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규진 (2016). **부산지역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성환, 김해룡 (2001).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경영연구**, 4(2), 3-29.
- 정채기 (1991).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영미 (2009). **부모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매개로**.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진영, 이광호 (2012). 대학생의 진로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19(9), 189-213.
- 하정 (2008).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 결정 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31-454.
- 황매향, 조효진, 조윤진, 방지원 (2013). 대학생의 일의 의미와 진로결정 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3), 675-699.

- Boyd, N. G., & Vozikis, G. S. (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63-77. doi:10.1177/104225879401800404
- Brockhaus, R. H., & S. Horwitz. (1986).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ship." In Sexton, & R. W. Smilor (Eds.),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Cambridge, MA: Ballinger.
- Blustein, D. L. (2011). A relational theory of wor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1), 1-17. doi:10.1016/j.jvb.2010.10.004
- Blustein, D. L., Devenis, L. E., & Kidney, A. B. (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166-177. doi:10.1037/0022-0167.36.2.196
- Blustein, D. L., Schultheiss, D. E. P., & Flum, H. (2004). Toward a relational perspective of the psychology of careers and working: A social constructionist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4(3), 423-440.
- Chena, B., & Guignard, M. (1998). Polyhedral Analysis and Decompositions for Capacitated Plant Location-type Problems. *Discrete Applied Mathematics*, 82(1-3), 79-91. doi:10.1016/s0166-218x(97)00096-6
- Cohen, C. R., Chartrand, J. M., & Jouwdy, D. P. (1995).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subtypes and ego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440-447.
- Corbin, J., & Strauss, A.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3rd ed.). Los Angeles, CA: SAGE. doi:10.4135/9781452230153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all, M. D., Gall, J. P., & Borg, W. R. (2003). *Educational research: An introduction* (7th ed). Boston, MA: A & B Publications.
- Gati, I., Landman, S., Davidovitch, S., Asulin-Peretz, L., & Gadassi, R. (2010). From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to career decision-making profil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 277-291. doi:10.1016/j.jvb.2009.11.001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10. doi:10.1037/0022-0167.43.4.510
- Gergen, K. J. (2009). *Realities and relationships: Soundings in social constru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Guay, F., Ratelle, C., Senecal, C., Larose, S., & Deschenes, A. (2006). Distinguishing developmental from chronic career indecision: Self- efficacy, autonom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2), 235-251. doi:10.1177/1069072705283975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Jossey-Bass.
- Guba, E. G., & Lincoln, Y. S.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Sage.
- Glaser, B., & Strauss, A. (1968).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Weidenfeld and Nicholson. doi:10.1097/00006199-196807000-00014
- Kimes, H. G., & Troth, W. A. (1974). Relationship of trait anxiety to career decis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4), 277. doi:10.1037/h0037611
- Krueger, N. F., & Brazeal, D. V. (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doi:10.1177/104225879401800307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doi:10.1016/0001-8791(79)90065-4
- Holland, J. L., Gottfredson, D. C., & Power, P. G.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91-1200. doi:10.1037/h0077731
- O'Hare, M. M., & Tamburri, E. (1986). Coping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 anxie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3), 255. doi:10.1037/0022-0167.33.3.255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20. doi:10.1037/h0092976
- Lihui, Y., Liu, L., Hongyan, L., Tianlong, H., Yueran, W., & Zhenhu, H. (2018). Nationality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Profiles And Career Self-Efficac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6(3), 471-484. doi:10.2224/sbp.6823
- Manning, K., Biele, S., & Norburn, D. (1989). Developing a new ventures strateg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1), 68-76. doi:10.1177/104225878901400106
- Morris & Lewis (1995).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activity: Implications for marketing.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9(7), 31-48. doi:10.1108/03090569510094991
- Shapiro, A., & Sokol, L. (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 Skovholt, T. M., & Morgan, J. I. (1981). Career development: An outline of issues for men.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231-237. doi:10.1002/j.2164-4918.1981.tb00289.x
- Strauss, A., & Corbin, J. M. (1996). **근거이론의 이해** (김수지, 신경림 역.). 서울: 도서출판 한울. (원저 1990년 발행)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 Sage.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Brothers.
- Willner, T., Gati, I., & Guan, Y. (2015). Career decision-making profiles and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A cross-cultural comparison among US, Israeli, and Chinese samp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8, 143-153. doi:10.1016/j.jvb.2015.03.007

- Yan, J. (2010).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Personality Traits on Perception of New Venture Opportunity. *New England Journal of Entrepreneurship*, 13(2), 20-35. doi:10.1108/neje-13-02-2010-b002
- Yoon, N. S. (2012b). The Effect of Potential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n Entrepreneurship and Commitment to Starts-up: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5(2), 1537-1557.
- Zhou, S., Leung, S. A., & Li, X. (2012). The meaning of work amon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Findings from prototype research method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3), 408. doi:10.1037/a0028374

ABSTRACT

A study on the start-up decision-making process of university students: A grounded theory based approach

Jo, Jihy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heory suitable for the Korean socio-cultural context Korea by revealing the experience of the start-up decision process of university students as a chosen career path. The final 16 subjects were selected using snowball sampling from the cases selected through detailed case selection. They were interviewed between 2 to 3 times, and the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grounded theory method. A total of 420 concepts, 40 subcategories, and 16 categories were created through open coding. As a result of paradigm analysis, the central phenomenon was found to be 'finding alternatives through frustrating experiences and career discovery of start-ups'. Participants used 'winging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opportunities to contact entrepreneurs and positive feedback', 'competence verification as entrepreneurs', 'active mobilization of social resources' as action strategies to cope with the central phenomena.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substantial information and knowledge to university students regarding the processes involved in selecting engaging in start-up enterprises as a viable, alternative career path.

Key Words: university students, start-up decision-making process, grounded theory

투고일: 2021. 8. 27, 심사일: 2021. 10. 25, 심사완료일: 2021. 11. 3

* Konkuk Glocal Campus University, Cogito University Education Innovation Institute, an assistant professor